

광주 현대사 품은 '전일빌딩 245' 문화시설로 29일 개관

광주시, 운영조례 공포... 문화·역사·미래 공간으로 재탄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땀 개관 연기 가능성

리모델링을 거쳐 광주의 현대사를 품은 문화 시설로 다시 태어난 '전일빌딩 245'가 개관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개관한다. 다만 시민 복합문화시설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장기화할 경우엔 개관일이 미뤄질 수도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방 시간과 이용 절차 등을 규정한 전일빌딩 245 관리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제정·공포됐다. 전일빌딩은 제정된 조례에 따라 5·18민주평화광장과 연결돼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1층 로비와 광주 도심 및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시설에 대해선 하절기 오전 9시~

밤 10시, 동절기 오전 9시~밤 9시까지 개방한다. 또 광주와 인근 남도의 관광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남도 관광센터를 비롯한 노트북과 태블릿 등으로 DV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정보 도서관은 오전 10시~오후 7시, 시민갤러리·전일 생활문화센터·중소회의실·다목적강당 등은 오전 9시~밤 10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어긋나는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 누구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3만~5만

원을 내고 중·소회의실, 다목적 강당, 시민 갤러리 등을 대관해 사용할 수 있다. 1968년 준공된 전일빌딩이 '전일빌딩 245'란 새 이름으로 바뀐 것은 5·18사적지 28호인 전일빌딩의 건물 도로명 주소가 광주 금남로 245인데다, 2016~2017년 국립과 학사사연구원 조사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건물 10층과 외벽에 박힌 총탄 자국이 245개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25개의 총탄자국이

발견되긴 했지만, '전일빌딩245'란 건물명은 주소 등 상징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역사성이 담긴 전일빌딩에 대해 4년 3개월 간 국비 120억원, 시비 331억원 등 총 451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9243㎡를 리모델링했다. 시는 광주다움을 알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과 광주의 아픔을 극복한 숭고한 오월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역사문화공간, 그리고 광주시 문화산업

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문화 창조공간 등 크게 3개축으로 전일빌딩을 재창조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우려와 협조로 마무리 개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진정세에 맞춰 시민에게 개방하고, 광주의 미래문화창조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활절이던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서림교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영·유아 및 초등학생 교인들을 대상으로 부활절 달걀과 교구, 다과 등이 담긴 꾸러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조기지급

5~7월분 5월에 지급...가계생계비는 13일부터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 5~7월 생활지원금 3개월분 30만원을 5월에 조기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생계지원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 100% 이하 세대와,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5·18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금 3개월분을 조기 지급받고 싶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은 유가족의 자격 증명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재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13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

든 가구에 지원하는 가계금융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가구는 통보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의 생계비를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원된 광주상생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휴업소를 제외한 광주지역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분실시 재발급 되지 않는다. 시는 소득조치 등 관련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세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 8일까지 가능하며 신청과 지급 관련 문의는 120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개신교회 521곳 예배 강행...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부활절 이유... 천주교회는 미사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 환자 감소세...누적 확진자 1만512명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에도 부활절인 12일 광주지역 개신교회 521곳이 예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한 천주교는 부활대축일 미사를 온라인 생중계 했다. 광주시는 12일 현장점검 결과, 개신교회 1451곳 중 521곳이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지난 주 205곳보다 두 배 가까운 교회가 부활절이라는 이유로 예배에 나선 것이다. 교회들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비치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역당국과 시민의 불안감은 크다. 실제 이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중 96%인 500곳은 손 소독제 비치, 거리 유지,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또 일부 교회는 부활절 예배 횟수를 4부까지 늘려 소규모 인원만 예배에 참석하게 했고 목사와 장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온라인 중계를 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경고장을 배부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폐쇄 등 행정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광주 27명, 전남 15명 등 총 1만512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3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일과 7일 각각 47명, 8일 53명,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214명으로, 전날보다 3명 늘었다. 평균 치명률은 2.04%다.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 125명이 늘어 총 7368명으로, 완치율도 70.1%로 높아졌다. 지금까지 총 51만4621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받았다. 이 중 49만321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1만378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원식 전 국무총리 별세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정원식(사진) 전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12일 유족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부전증을 앓아 3개월여 전부터 투병하던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서울대 사범대 교수 출신인 정 전 총리는 한국교육학회 회장,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1992년 총리를 지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만 투표 가능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대본)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이날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거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일반 유권자가 투표한 뒤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동안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하면서,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투표 과정을 관리한다. 중대본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유창전기(이하 '갑')와 주식회사부전전기(이하 '을')가 합쳐 2020년 04월 12일 개편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과 소방시설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들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의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에 공표함

사기 2020년 04월 13일

갑 상 호: 주식회사 유창전기 (법인등록번호: 134611-005218)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전원면 나노산리2로 52 사내이사: 유승철

을 상 호: 주식회사 부전전기 (법인등록번호: 200111-0595153)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로 486, 2층(충성동) 사내이사: 김성수

자본금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0년 04월 10일 주주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400,000,000 원 중 금10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30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10,000주를 무상소각하여 3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금소공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13일

주식회사 김성이앤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단중앙로152번길 17-12, 201호 (쌍암동, 에이앤-씨티3차) 대표이사 윤양실

정정공고

본지 2020년 3월 16일자 게재된 (주)모아전기기술단과 (주)신화전기의 분할합병공고중, 갑 (주)모아전기기술단의 주소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632번길 89(내삼미동)"를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비동 1423호(영천동, 동탄테크밸리에이스타워)"로 정정 공고함.

분실공고

-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일원 힐스테이트 연제 105동 801호
- 계약자: 김 성 에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4월 13일

산행안내

4월18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18일(토) 여수 환상이섬 연도 소리도 등 백꽃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 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3:20, 영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동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네나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